

# 사흘째 폭염주의보...광주 무더위쉼터 '그림의 떡'

### 일부 경로당 문 잠겨...개방 된 곳도 에어컨 미가동 "덥지만 전기료 부담에...동여건 맞는 지원책" 호소

"누구 하나 쓰러진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더위지만, 전기료가 겁나 에어컨은 엄두도 못낸단게."  
광주·전남에 사흘째 폭염주의보가 발표되면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광주 일부 '무더위쉼터'는 에어컨이 꺼져있고 개방됐다 하더라도 에어컨을 틀지 못해 무더위 피하기가 '그림의 떡'에 그치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서창동의 한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겸하고 있는 이곳 경로당은 체감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에도 문이 굳게 닫혀있어 혹서나 하고 찾아온 이들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비슷한 시각 인근의 한 경로당은 문은 열려 있었지만, 무더위쉼터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내부가 후텁지근했다.  
경로당 안에는 에어컨 1대와 선풍기 2대가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거나 청소를 하던 어르신들의 이마와 땀에는 굵은 땀방울이 설 새 없이 흘러내렸다.  
가만히 있어도 더운 날씨여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켜 봐도 했지만, 어르신들은 '돈이 안드는' 부채로 더위를 견디



19일 오전 찾은 광주 서구 서창동의 한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겸한 이곳의 어르신들은 체감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에도 냉방비 등의 부담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 있다. /안재명 기자

고 있었다. 다만, 같은 날 오후 광주 동구(계림동·소태동), 남구(서동·양림동), 북구(중흥 2동)의 경로당들은 내부에 시원한 공기가 돌고 있었다.

에어컨과 선풍기 바람 아래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던 어르신들은 "살만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광주 내에서도 무더위쉼터의

상황이 제각각인 것은 날씨, 시간대, 집결 인원 등에 따라 개소 및 냉방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냉방비 지급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이용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이날 광주 동·서·남·북구에 따르면 냉방비 지급 시기는 서구 8월, 북구와 남구는 7월, 동구는 이달 말로 각각 차이가 있었다.  
또 동별 특성에 따라 냉방비를 차등하지 않고 일괄 지급되는 점도 편차의 이유로 지목됐다.  
서구 서창동에 이날부터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광주은행 지점이 없어 어르신들의 생활 속 괴사는 무더위쉼터를 겸한 경로당이 유일하다.  
하지만 냉방비는 모든 경로당에 동일하게 20만원씩 지급돼 '불공평하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창동 한 경로당의 이모(82)씨는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지만, 지원 금액이 정해져있고 아직 받지도 못하다보니 전기세를 생각하면 에어컨 기기가 쉽지 않다"며 "긴 여름과 무더위는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냉방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이어 "이쪽 동네(서창동)엔 마땅히 더위를 피할 곳이 없어 노인들이 경로당에 많이 모이는 데 냉방비가 부족하다"며 "실정에 맞는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경로당별로 무더위쉼터 운영에 차이가 있어 개방 날짜와 시간이 조금씩 다르다"며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심분 이해하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재명 기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 19일 광주 남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열렸다. 이날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남구청 아동청소년과 직원들이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김애리 기자

## 광주서 대마 피우고 케타민 투약 내외국인 '덜미'

광주에서 마약을 투약한 내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의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동구 자신의 자택에서 50만원 상당의 대마초 1g을 소지하고 2차례 피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

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역 마약 유통 흐름을 추적하던 중 A씨의 대마초 구매 정황을 포착하고 검거에 나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한편 유통경로 등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광산경찰서도 같은 혐의를 받는 배

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인 30대 B씨를 붙잡아 지난 16일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B씨는 15만원 상당의 케타민 0.03g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안 내부를 수색하던 중 마약 투약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태호 기자

## '공사장 돌며 고의사고'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 1년여간 5곳서 1억여원...광주경찰, 50대 구속·가족 등 공범 7명도 입건

도로공사 현장을 찾다니면서 고의로 차 사고를 내 역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미흡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고, 공사를 발주한 기관장을 면담하면서 압박해 합의금을 유도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 보상금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50

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담양·나주·화순·장성 등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5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 사고를 내 보험금 등 보상금을 1억1천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족과 지인들을 공범으로 동원해 차량을 바꿔타며 사고를 냈고, 입원 치료비를 받아내기 위해 사고 차량에 동승자들을 태워 범행

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반복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난 것을 수상히 여긴 도로공사 발주처 관계자가 경찰에 알리면서 들들나게 됐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비롯한 피의자 8명을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오복기 기자

### 박홍률 목포시장 징역 1년 구형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중 TV 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민주당 모 국회의원의 대확동문인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장 실적 홍보를 위해 수 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13일 오전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목포=정해선 기자

### '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속

### 8명에게 1억9천여만원 빼앗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1억9천여만원을 빼앗은 현금수거책이 구속됐다.  
1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서 현금을 받아 총책에게 넘긴 혐의(사기)로 A(31)씨를 구속,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광주를 비롯해 전남, 전북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8명에게 1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

고 있다.  
A씨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조사를 해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광주 동구에서 A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펼쳐 최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으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 짓고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안태호 기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